"광주시장 배심원제·전남지사 국민경선 유력"

민주 '혁신과 통합위' 최재성 간사 밝혀

최고위, 시민배심원제 도입 의결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20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CMB컨벤션센터 1층에서 '공천제도 혁신안 호남지역 설명회'를 갖고 시민배심원제 등 공천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6·2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방식과 관련,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부분 도입되고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0일 광주 CMB광주방송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민주당 공천제도 혁신안 지역순회 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는 역대 공천제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광역시 가운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 광주시이고, 전라남도는 국민참여경선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광역)시·도지사 경선은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전)국민경선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 시민배심원제와 변형된 배심원제, 국민참여경선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도 지역은 지역 내 생활권과 문화권이 달라 배심원을 표본 추출하기 어려운 반면 광역시 지역은 동일 권역이어서 표본 추출이 쉬어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시민배심원경선을 적용할 대상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거나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 후보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 등으로 중앙당 등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당헌·당규상 단체장 선거구의 30%까지 전략 공천할 수 있는 만큼 전국 248개 광역 기초단체의 30%인 70곳을 시민배심원제로 할 수 있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경선일정을 고려할 때 최대 40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혁신과 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광역단체장의 경우 200명의 시민배심원으로 후보를 뽑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다고 수천여명을 배심원단을 꾸리는 것도 실효가 없어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단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선전으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광주의 경우 시민배심원제로 후보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의원은 강기정 의원이 제기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 60%+당원투표 40%'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부대변인도 "가점제를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에 위배돼 선거법에 규정하는 경선이 되지 못한 관계로 탈락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15% 내에서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애초 검토됐던 최고위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 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갖지 않으며 공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재의 요구권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천심사 시 배려할 대상을 기존 여성·장애인·사무직당직자에서 청년을 추가했으며 지방의원 경선 방법 중 당원·대의원경선만 남기고 지역 상무위원회 경선은 삭제하는 한편 기초의원은 정수의 과반수 공천을 원칙으로 했다.

이 부대변인은 "광역자치단체장 공천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2월초께 구성되는 공천심사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영택 광주시장 출마땐 의원직 사퇴할까

이번주 결정… 현실화되면 경선판도 요동

정찬용 전 靑 수석 민주당 입당도 주목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조영택 의원의 '출마 결정 여부'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조영택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 여부는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무려 5개월 동안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조 의원은 지난 주 의정보고회를 통해 이번 주 내에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동안 조 의원은 광주시장 경선에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자신까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고향 출신의 박광태 광주시장, 정치적으로 절친한 관계인 양형일 전 의원과 정동채 전 장관, 친구 사이인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도 조 의원의 결단을 미루게 한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조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 판도에 상당한 파문을 가져올 전망이다.

조 의원의 출마선언과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미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이용섭 의원도 의원직 사퇴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광주시장에 도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이미 점화된 이후, 뒤늦게서야 참여하는데다 그동안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성적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민주당 입당 여부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정 전 수석이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등 5개 야당과 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5 연대기구' 구성이 가시화된 이후 민주당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 및 시민사회진영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은 아직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월 중순 이후에나 연대 기구 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정 전 수석의 입당 여부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고민되네"

광주시장·전남지사 입지자 지원 요청 쇄도

1년 6개월여 춘천에 칩거 중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지방선거가 4개월 이상 남았는데 벌써 광역 및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자는 물론 정세균 대표까지 지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요청을 받고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21일)과 전남지사를 노리는 주승용 의원(23일)의 출판기념회에도 각각 참석 요청을 받고 영상메시지로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 아니라 박광태 광주시장도 수차례 안부 전화를 통해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는 이번 주 이 의원과 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으나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함께 참석할 경우, 세 불리기 경쟁하는 모습처럼 비춰져 칩거 의미를 퇴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대선후보 틈에서 후보들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부평과 수원 재보선에서 승리를 이끈 뒤 수도권에서의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 광역·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직접 춘천까지 찾아와 출마기념회 참가와 지원을 읍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지방선거 핫코너

서기남씨 도교육감 출마 선언

○…서기남(67) 전남도교육위원은 20일 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남교육을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전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또 낙후된 전남교육의 틀을 타파하고 새로운 학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의 비전을 제시, 전남교육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씨 23일 출판기념회

○…영암군수 출마를 준비중인 김재원(50)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 특별보좌관이 23일 오후 2시 영암군민회관에서 자신이 저술한 책 '김재원의 희망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박지사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김 보좌관은 이 책에서 대불대 교수와 전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 종합민원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개발 전문가로 발돋움하기까지의 인생 과정을 담백하게 적었다.

영암군 삼호읍 출신인 김 보좌관은 목포 문태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영집씨 남구청장 출마 선언

○…김영집(48)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는 20일 "살기 좋은 창조의 중심자치구를 만들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끊임없이 부정부패 시비가 일어나는 남구를 가장 깨끗한 청렴 자치구로 만들고 사람 살기좋은 자치구, 최고의 생태문화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민생민주연합후보로서 남구의 민생민주, 민주개혁연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희동 사무총장 출판기념회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오는 23일 오후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자신의 에세이집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윤수 전남대총장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재균·강기정·조영택·이용섭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의 책은 그동안 언론에 발표했던 정치 문제 칼럼을 중심으로,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 등이 담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